



NIM 하락 예상되지만 대출성장을 확대가 이를 상쇄

은행 Weekly | 2026.9.14

Analyst 최정옥, CFA cuchoi@hanafn.com

RA 정소영 soyoungjung@hanafn.com

전주 주요 뉴스 기사 정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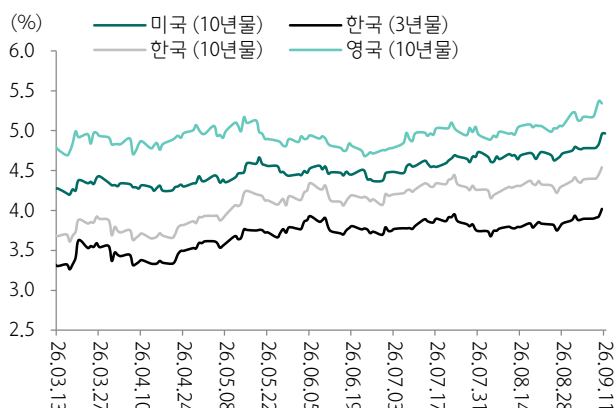
- 금리 상승에 은행 예금금리 줄인상. 주요 은행 1년 만기 금리가 3.3~3.4%까지 인상되어 자금 흐름에 변화가 나타날지 주목. 국내 은행권 정기예금 잔액은 2분기 중 매일 14~15조원 가량 증가하다가 7월에는 42조원 급증했고, 8월에도 20조원 증가
- 5대 시중은행 고객 중에 50대 이상이 보유한 수신자산이 전체의 3분의 2에 육박해 50대 이상이 절반 이상 차지. 시니어고객의 영향력이 커지자 은행들도 예·적금 유치를 넘어 연금과 은퇴설계, 상속·증여, 요양·돌봄 등으로 서비스 영역을 넓히는 모습
- 새마을금고와 농협 등 상호금융이 연초 중단했던 집단대출 영업을 최근 재개하면서 하반기 입주장을 둘러싼 금융권 영업경쟁 격화 전망. 하반기 서울 아파트 입주 물량까지 늘면서 잔금대출을 중심으로 금융사간 금리·한도 경쟁이 치열해질 것으로 예상
- 홍콩 ELS 불안전판매를 둘러싼 법적 공방에서 농협은행이 투자자를 상대로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승소. 은행에 유리한 법원 판단이 이어지면서 6,000억원대로 낮아진 은행권 과징금이 금융위 심의 과정에도 일정부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관측

Valuation, Performance 및 투자주체별 매매 동향

(2026년 9월 11일 종가 기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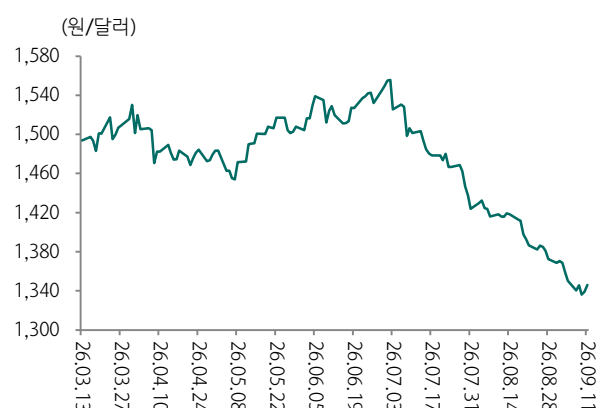
	PBR (2026F)	PER (2026F)	ROE (2026F)	ROA (2026F)	Mkt. Cap. (bil.)	Performance (%)				Weekly Net Buy (십억원)			
						1W	1M	3M	YTD	국내기관 (연기금)	외국인	개인	
KOSPI	1.58	6.7	23.7		5,695,912.9	3.3	8.9	-14.9	64.0	3,653.6	-151.0	-1,649.8	-10,413.8
은행	0.74	8.4	9.1	0.64	220,313.7	3.0	6.8	10.2	35.1	51.2	26.3	93.9	-136.4
KB 금융	0.97	9.3	10.6	0.81	63,099.0	3.4	6.8	10.4	42.7	-12.2	-1.3	49.4	-34.6
신한지주	0.85	10.2	9.5	0.68	53,000.9	2.4	8.0	13.4	46.8	44.6	-7.2	-26.9	-16.6
우리금융	0.63	7.9	8.3	0.52	25,861.2	5.7	3.8	12.7	25.4	-4.2	-5.2	62.7	-57.1
하나금융	0.75	8.5	9.3	0.64	37,807.9	2.6	7.9	13.9	46.4	-27.9	-16.0	38.2	-9.2
기업은행	0.44	6.0	7.5	0.54	16,626.3	0.7	3.5	-4.4	-0.5	-4.9	1.1	7.4	-2.4
BNK 금융	0.44	6.1	7.4	0.50	4,888.0	3.5	6.9	-9.8	0.4	23.5	21.4	-11.7	-10.4
이M 금융	0.44	6.0	7.5	0.47	2,921.8	1.8	8.1	4.2	18.6	4.2	5.4	-2.8	-1.4
JB 금융	0.90	7.8	12.1	1.00	5,922.1	2.4	10.4	18.9	23.8	28.1	28.1	-22.4	-4.6
카카오뱅크	1.43	17.6	8.3	0.73	10,186.5	-2.7	-3.8	-10.1	-1.2	-0.7	3.1	-3.2	3.8
삼성카드	0.58	8.4	7.0	1.90	5,271.6	-1.4	-3.7	-11.7	-18.6	-2.1	-0.8	0.0	2.1

최근 6개월 글로벌 금리 추이



주: 국고채 10년물 기준, 한국은 3년물과 10년물

최근 6개월 원/달러 환율 추이



주: 원/달러 환율은 종가 기준

전주 평가와 금주 전망

- 전주 은행주는 3.0% 상승해 KOSPI 상승률 3.3%와 대동소이한 주가수익률을 기록. SK하이닉스 상승과 더불어 반도체 소부장과 이차전지, 원전 관련주들이 지수 상승을 견인했지만 글로벌 국채금리가 급등하면서 은행주도 금리 모멘텀을 받았기 때문. 원/달러 환율은 하락 강도가 다소 약화되었지만 지난주에도 추가 하락해 은행주에 우호적인 매크로 지표 흐름 지속 중. 지난주 미국 국채금리는 급등. 중동 불안에 국제유가가 계속 상승하면서 인플레이션 우려가 커졌고, 유럽이 기준금리 추가 인상에 나섰으며 미국 8월 CPI도 헤드라인은 무난했지만 연준이 중요시하는 근원물가가 예상을 상회했기 때문. 따라서 9월 금리 인상 확률이 86%까지 치솟았으며 미국 10년물 국채금리는 심리적 마지노선인 5% 턱밑까지 상승한 상황. 미국 2년물 국채금리는 4.63%로 한주간 26bp나 상승했고, 10년물 국채금리는 4.97%로 19bp 한주간 추가 상승. 국내 국채금리도 상승세가 이어짐. 3년물 국채금리는 4.01%로 한주동안 13bp 상승했고, 10년물은 4.54%로 한주간 18bp 상승. 한편 원/달러 환율은 주중 1,330원대까지 하락하기도 했지만 1,344.1원으로 마감해 한주간 6.0원 추가 하락. 금주 17일과 18일에 예정된 FOMC와 BOJ 회의 결과에 따라 원/달러 환율이 다시 상승 압력을 받을지가 주목할만한 대목. 외국인들은 지난주에 KOSPI를 약 1.6조원 순매도한 가운데 은행주를 940억원 순매수해 오랜만에 은행주에 대해 순매수로 전환. 국내 기관은 KOSPI와 은행주를 각각 3.7조원과 510억원 순매수. 다만 국내 기관은 은행 자사주 매입분을 제외할 경우에는 실질적으로는 순매도 상황임
- 전주 특징주는 우리금융. 블록딜 직후 상대적 주가 약세를 보여 왔던 우리금융은 외국인 매수세가 다시 대거 유입되면서 주가가 한주간 5.7% 상승해 은행주 중 가장 큰폭으로 상승. 현 주가가 유진PE 블록딜 가격이었던 33,189원을 크게 상회하게 되면서 단기 매물 출회 우려도 일단은 약화된 상황. 그 외 BNK금융도 주가가 강세를 보였는데 이는 KOSPI 중형주로의 분류 때문. BNK금융과 JB금융이 대형주에서 중형주로 분류되면서 오히려 연금펀드 수급이 개선되고 있음. 연기금은 BNK금융과 JB금융을 9월 1일부터 계속 순매수하고 있는데 재분류일이 9월 12일이므로 상기 수급 영향은 거의 일단락될 것으로 추정됨
- 우리 필드테스트에 따르면 은행 8월 월중 NIM이 7월 대비로도 평균 약 2~3bp 추가 하락할 것으로 예상. 1) 올해 상반기 국채금리 상승에 따른 후행적 수신금리 상승과 은행들의 특판 정기예금 판매 등으로 조달금리 상승세가 이어지고 있고, 2) 가계대출 금리는 상승세가 나타나고 있는 반면 기업대출금리가 신규취급액 기준으로는 오히려 크게 하락하고 있기 때문. 특히 중소기업대출금리가 더 크게 하락하고 있는데 이는 생산적금융 확대 등에 따른 경쟁 영향 등에 기인한 것으로 추정됨. 아무튼 7~8월 월중 NIM 하락으로 9월에 소폭 반등한다고 가정해도 3분기 은행 NIM은 평균 QoQ 약 2~3bp 하락해 하락 폭이 예상보다 커질 전망. 은행별로는 기업은행만 NIM이 유일하게 상승하고, 대부분의 은행들은 약 2~4bp 하락 예상. 다만 3분기 대출성장률이 최소 1.5% 이상으로 커지면서 NIM 하락분을 상쇄해 3분기 은행 순이자이익이 QoQ 감소하지는 않을 것으로 전망됨. 가계대출 총량규제도 이전보다는 완화되는데다 원/달러 환율 하락 영향으로 CET 1 비율이 큰폭 상승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향후 대출성장률은 RWA 증가율을 크게 높이지 않는 선에서 기존 예상보다 높아질 가능성이 커졌다고 판단
- KB금융 회추위는 차기 회장으로 이재근 KB금융 부문장을 선임. 현 회장의 연임 가능성을 예측하는 시각이 많았었다는 점에서 이번이라는 평가. 한편으로는 KB금융 이사회의 독립성 및 경영진 견제/감독 기능이 잘 발현되고 있다는 의미로도 해석할 수 있음. 신임 회장 후보는 과거 그룹 CFO를 거쳐 은행에서도 경영기획 및 재무 등을 담당했고, 은행장도 역임한 바 있음. KB금융에 대한 이해도가 매우 높은 내부출신 인사이면서 시장 및 투자자 친화적인 인물이라는 점에서 기존의 그룹 경영전략과 밸류업 프로그램 등을 일관성있게 잘 계승 또는 발전시킬 수 있을 것으로 예상. 따라서 갑작스러운 최고경영진 변화로 인해 관련 불확실성 우려가 제기되는 현상은 없을 것으로 판단
- 국채금리 상승에도 불구하고 은행 NIM이 하락하면서 관련 우려가 일부 제기될 수 있지만 NIM 하락은 일시적 현상일 전망. FOMC와 BOJ 결과에 따라서 은행주에 금리 모멘텀이 지속될 가능성이 높는데다 3분기 실적도 예상외로 상당히 양호할 것으로 보여 실적 시즌을 겨냥한 은행주 매수 전략 바람직. 9월은 긍정적인 주가 흐름이 기대된다는 기존 의견을 계속 유지

주간 선호 종목 - 주간 단위의 단기 선호 종목으로서 당사 최선호 종목 및 중장기 선호 종목과는 다를 수 있음

KB금융(매수/TP 235,000원), 우리금융(매수/TP 43,000원)

- 최근 외국인들의 KB금융에 대한 순매도세가 현저히 약화 중이며 3분기 추정 순익은 약 2.06조원으로 역대 최대 분기 순익 재차 경신 예상. 금리 모멘텀 발생시 리딩뱅크 프리미엄이 강화될 가능성이 높아 업종내 주도주로 재부각될 것으로 예상
- 우리금융은 유진PE 블록딜에도 불구하고 외국인 매수세가 재유입되면서 수급 여건이 크게 개선 중. CET 1 비율 추가 급등으로 향후 주주환원율이 크게 확대될 것으로 기대되는데다 올해 주가상승률이 경쟁사들 대비 미미해 상대적 valuation 매력도 높음

Global Peer Table

(2026년 9월 11일 종가 기준)

	PBR (2026F)	PER (2026F)	ROE (2026F)	ROA (2026F)	Mkt. Cap. (bil.)	Performance (%)			
						1W	1M	3M	YTD
KOSPI	1.58	6.7	23.7		5,695,912.9	3.3	8.9	-14.9	64.0
은행	0.74	8.4	9.1	0.64	220,313.7	3.0	6.8	10.2	35.1
KB금융	0.97	9.3	10.6	0.81	63,099.0	3.4	6.8	10.4	42.7
신한지주	0.85	10.2	9.5	0.68	53,000.9	2.4	8.0	13.4	46.8
우리금융	0.63	7.9	8.3	0.52	25,861.2	5.7	3.8	12.7	25.4
하나금융	0.75	8.5	9.3	0.64	37,807.9	2.6	7.9	13.9	46.4
기업은행	0.44	6.0	7.5	0.54	16,626.3	0.7	3.5	-4.4	-0.5
BNK금융	0.44	6.1	7.4	0.50	4,888.0	3.5	6.9	-9.8	0.4
IM금융	0.44	6.0	7.5	0.47	2,921.8	1.8	8.1	4.2	18.6
JB금융	0.90	7.8	12.1	1.00	5,922.1	2.4	10.4	18.9	23.8
카카오뱅크	1.43	17.6	8.3	0.73	10,186.5	-2.7	-3.8	-10.1	-1.2
삼성카드	0.58	8.4	7.0	1.90	5,271.6	-1.4	-3.7	-11.7	-18.6

미국

S&P 500	5.15	21.3	22.9	6.03	68,321.1	-0.8	-0.8	3.8	11.9
은행	1.75	13.2	13.3	1.15	2,345.1	-0.3	-1.1	10.3	10.4
Wells Fargo	1.60	13.0	13.3	1.03	273.0	0.4	3.2	10.2	-3.1
JPM	2.58	14.5	18.7	1.38	946.9	-0.7	-1.6	14.1	10.6
CITI	1.18	12.5	10.0	0.71	232.9	0.8	2.2	1.0	19.0
BOA	1.55	13.5	12.2	0.99	438.4	0.0	-1.5	14.2	14.0
US Bancorp	1.55	12.0	13.4	1.18	97.9	-0.8	-2.3	10.0	17.8
PNC	1.62	12.7	13.2	1.27	97.4	-0.6	-3.9	5.2	17.0
BB&T	1.02	10.9	9.6	1.05	61.6	-2.4	-2.7	0.4	2.4

중국

상해A주지수	1.37	13.8	10.1	1.43	62,488.2	-1.0	-1.0	-1.4	-2.0
은행	0.72	7.8	9.4	0.69	13,020.0	0.1	8.0	6.8	-0.6
공상은행	0.70	7.8	9.0	0.68	2,751.5	-0.2	6.7	5.9	2.3
건설은행	0.77	8.3	9.6	0.73	2,238.5	0.4	7.7	6.0	18.8
농업은행	0.83	8.4	9.9	0.62	2,392.2	0.1	7.6	4.3	-9.2
중국은행	0.74	8.8	8.7	0.65	1,999.9	0.0	11.7	8.1	14.7
교통은행	0.54	7.0	7.9	0.62	641.4	0.8	8.1	10.1	3.2
초상은행	0.87	7.0	12.9	1.13	1,057.0	-0.8	6.2	9.7	-1.8

일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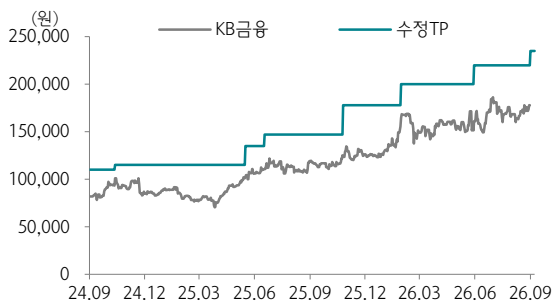
NIKKEI	2.73	20.8	12.7	4.58	1,033,853.6	-1.6	-4.4	-0.2	27.2
은행	1.51	14.7	10.2	0.53	148,802.6	-2.3	5.5	15.9	48.0
Mitsubishi UHF	1.94	18.5	10.8	0.61	43,447.7	-3.3	4.3	16.6	46.9
Sumitomo Mitsui Financial	1.69	16.7	10.8	0.61	26,269.6	-2.4	4.3	11.4	37.1
Mizuho	1.92	17.8	11.4	0.43	21,140.3	-1.4	5.0	17.0	51.8
Sumitomo Mitsui Trust	1.48	16.4	9.3	0.37	4,939.2	-1.9	5.3	20.3	48.0

유럽

MSCI Europe	0.70	15.5	4.3	1.76	15,286.9	-1.7	-3.1	3.2	8.1
은행	1.58	11.6	13.8	0.74	2,265.5	-0.1	0.6	19.6	23.1
HSBC	1.93	12.5	15.3	0.85	266.4	-1.7	2.4	18.0	32.3
Santander	1.71	12.3	13.9	0.79	193.5	0.1	0.3	23.1	28.0
BNP Paribas	0.93	8.8	10.9	0.45	114.3	-0.7	-7.1	12.9	28.4
Credit Agricole	0.75	8.0	9.9	0.29	57.0	-1.0	-7.0	14.7	6.1
Deutsche	0.98	10.4	9.6	0.44	66.6	-1.9	5.2	25.8	5.2
Unicredit	1.80	11.5	16.6	1.24	128.4	1.8	0.4	21.0	20.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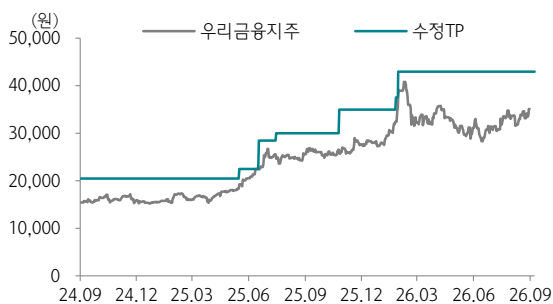
투자조건 변동 내역 및 목표주가 괴리율

KB금융



날짜	투자조건	목표주가	괴리율	
			평균	최고/최저
26.9.13	BUY	235,000		
26.6.12	BUY	220,000	-23.34%	-15.36%
26.2.11	BUY	200,000	-22.36%	-14.20%
25.11.7	BUY	178,000	-27.10%	-12.64%
25.6.30	BUY	147,000	-22.33%	-14.76%
25.5.29	BUY	135,000	-20.30%	-16.81%
24.10.25	BUY	115,000	-24.56%	-11.30%
24.7.24	BUY	110,000	-21.71%	-11.64%

우리금융



날짜	투자조건	목표주가	괴리율	
			평균	최고/최저
26.2.11	BUY	43,000		
26.2.7	BUY	37,500	-6.47%	-5.07%
25.11.7	BUY	35,000	-19.83%	-7.29%
25.7.28	BUY	30,000	-15.26%	-10.50%
25.6.30	BUY	28,500	-13.16%	-6.14%
25.5.29	BUY	22,500	-7.11%	0.22%
24.8.29	BUY	20,500	-20.23%	-10.54%

Compliance Notice

- 당사는 하나금융지주의 계열사입니다.
- 당사는 2026년 9월 14일 현재 해당회사의 지분을 1%이상 보유 하고 있지 않습니다.
- 본 자료를 작성한 애널리스트(최정욱)는 자료의 작성과 관련하여 외부의 압력이나 부당한 간섭을 받지 않았으며, 본인의 의견을 정확하게 반영하여 신의성실 하게 작성하였습니다.
- 본 자료는 기관투자자 등 제 3자에게 사전 제공한 사실이 없습니다.
- 본 자료를 작성한 애널리스트(최정욱)는 2026년 9월 14일 현재 해당회사의 유가증권을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본 조사항목은 고객의 투자에 정보를 제공할 목적으로 작성되었으며, 어떠한 경우에도 무단 복제 및 배포 될 수 없습니다. 또한 본 자료에 수록된 내용은 당사가 신뢰할 만한 자료 및 정보로 얻어진 것이나, 그 정확성이나 완전성을 보장할 수 없으므로 투자자 자신의 판단과 책임하에 최종결정을 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어떠한 경우에도 본 자료는 고객의 주식투자의 결과에 대한 법적 책임소재의 증빙자료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

투자등급 관련사항 및 투자조건 비율공시

- 투자건의 유효기간은 추천일 이후 12개월을 기준으로 적용

기업의 분류

BUY(매수)_목표주가가 연주가 대비 15% 이상 상승 여력
Neutral(중립)_목표주가가 연주가 대비 -15%~15% 등락
Reduce(비중축소)_목표주가가 연주가 대비 -15% 이상 하락 가능

산업의 분류

Overweight(비중확대)_업종지수가 현재지수 대비 15% 이상 상승 여력
Neutral(중립)_업종지수가 현재지수 대비 -15%~15% 등락
Underweight(비중축소)_업종지수가 현재지수 대비 -15% 이상 하락 가능

투자등급	BUY(매수)	Neutral(중립)	Reduce(매도)	합계
금융투자상품의 비율	98.18%	1.82%	0.00%	100%

* 기준일: 2026년 9월 11일